

Q1 저는 27세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는 부부관계를 할 때 이상하게 바람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남편은 저보고 칠칠 맞다고 관계 도중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불쾌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자연분만 했는데 작은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목욕탕 속에 있으면 물이 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선생님, 저같은 사람도 정상적인 부부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A : 부부관계 시 바람빠지는 소리가 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질 입구는 좁은 편인데 질 속은 넓은 경우이고 둘째, 질 입구 및 질 속 모두 이완되어 넓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부인의 경우처럼 분만 후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분만 중 질부 이완 및 손상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분만하지 않은 여성도 종종 이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선천적으로 질 안쪽이 넓고 입구는 좁은, 즉 파리처럼 생겨서 평소에도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탕에 있을 때 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질 수축력이 미흡하거나 분만 때 질입구 및 질 속이 커져 있을 때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성기능 장애 전문의와 상담하여 교정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Q2 저는 42세의 가정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가즘이란 걸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sex의 묘미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저는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생소하기만 합니다. 저도 오르가즘이란 걸 느끼고 싶고 남편과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에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오르가즘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병일까요?

A : 지금껏 오르가즘을 한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많은 고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성개방이 되어 있는 서구에서도 오르가즘을 한번도 느끼지 못했다는 여성들이 20~30% 정도 된다는 킨제이 보고서가 있는 것

을 보면 우리 나라 여성들은 그보다 많은 여성들이 불감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부부생활에 흥미를 갖기는 어렵겠지요. 남편 쪽은 부부관계를 원하지만 부인은 sex에 흥미가 없으니, 성의욕도 없고, 의무적으로 대하다 보니 더욱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감증의 원인으로는,

첫째, 남편의 성 테크닉이 결여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성 관계 전 애무없이 남편이 일방적인 성관계를 요구할 때,

둘째, 성교 시간이 너무 짧거나 남편 성기가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임포텐스 이거나 조루여서 사정을 너무 빨리 할 때,

셋째, 가정환경이 남성을 배타시 하면서 자랐거나 남성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남성 혐오증이 있을 때,

넷째, 성교 자체를 거부한다거나(정신적 문제)

다섯째, 가정환경이 너무 완고하고 엄한 시부모 밑에 같이 지내거나 아이들과 한방에서 지낼 경우, 또는 몸이 항상 피곤하거나 질병에 시달릴 경우

여섯째, 성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 나열하면 6가지 원인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오르가즘이란 성교시 항상 느끼는 것이 아니고 10번 관계시 2~3번 느끼면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ex는 부부 모두의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르가즘이란 여성 질 속 4~5cm 질벽 위에 동전크기의 G-spot이 자극을 받거나 크리틀리스가 자극을 받으면 발기되면서 질근육들이 경직되며 채채기를 하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르가즘에 오르면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서 갖게 되는 좋은 기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남성 역시 여성 오르가즘 때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오르가즘은 sex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의하신 부인께서는 성기능 장애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시고 면밀한 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성 성의학 상담 (Q&A)

유 회 현 · 유회현 산부인과 원장

Q3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을 한지 6개월째 되
는 39세 여성입니다. 전 남편과는 성문제로 트러
블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제 성기가 너무 크고 수축력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어 저와 이혼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
아 이쁜이 수술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은 불
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불평은 질입구는 너무 좁고
속은 너무 넓고 수축력이 없어 관계에 흥미가 없다는 겁
니다. 선생님의 책에서 수축력 보강술이 있다고 보았는
데 저도 그런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 지 궁금합
니다. 선생님, 저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이런 경우 재수술을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의 이쁜이 수술은 단순히 질 입구를 좁히는 수술이었
습니다. 입구를 무리하게 좁혔을 때 그런 현상이 옵니다.
관계시 입구 통증이나 갱년기에 질 입구가 딱딱해 진다거
나 악취가 난다던지의 여러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근래의 수술은 질 안쪽 7~8cm까지 질을 좁혀주면서
수축력 보강과 손상 근육 재생술과 질 성형 수술이 많이
발달하여 왔습니다. 부인과 같이 질이 너무 크고 질 수축
력이 부족한 경우나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면 빨리 성장에
크리닉을 찾아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분만, 잦은 유산(중기 유산), 마스터베이션 등 질기구
를 쓰다든지 자궁 수축술 등의 원인으로 인해 많은 질 손
상을 초래해서 부부 트러블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부인처
럼 이별을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이 아이를 분만함에 있어 난산을 하거나, 거

대이를 낳거나 머리가 큰 아이를 낳을 경우 특히 질 근육
의 손상이 클 수 있습니다. 우선 면밀한 질 검사를 하고
전문의와 상담 후 재수술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24세 여성입니다. 저는
올 가을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슴이 떨리고 불안하며 결혼하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자
신감이 없습니다.

대학 1년때 미팅으로 만난 남학생과의 잦은 성생활로
3번의 유산을 경험했고 6개월 때 중기 유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는 결혼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중매
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으나 너무 불안하
여 질 수술을 해서라도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앞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처녀막 재생 수술도 할
수 있는지요? 박사님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진행 중이라면 행복한 앞날
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겠지요.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
버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선 희망 찬 출발을
하십시오. 정신이 건강하다면 충분히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의 유산, 특히 중기 유산은 질의 변형을 가져왔
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산부인과를 찾아 자세한 질
검사 등, 결혼 전에 필요한 검사들을 하고 새 출발 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녀막 재생 수술은 물론 가능합니다. 단, 이런 기능
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깊은 신뢰와 서로의 사랑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결속시켜 주고 지탱해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72